

소식지 제 2호

포담초
사서교사



북큐레이션 |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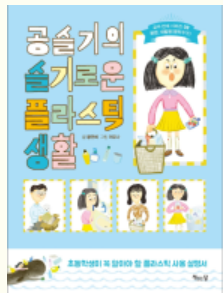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인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것.

플라스틱 섬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 후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빙빙 돌고 있는 **플라스틱 섬이 우리나라 면적이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바닷새가 바라본 관점으로 지은 그림책입니다. 고통을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보아요.

공슬기의 슬기로온 플라스틱 생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란 무엇인지, 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지,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슬기와 친구들의 일상을 통해 전달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아요.

쓰레기책

매일 쓰레기 관련 뉴스가 이야기되지만, 정작 쓰레기 문제가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분리수기는 잘하고 있지만 정작 분리수기된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꿔 보아요.



<6월 25일> - 한국전쟁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불과 5년도 안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대한민국을 침공했어요. 그 뒤 3년이 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험겨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동물들을 포함한 자연도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모두 함께 만들어 가요. 아래 책들을 읽어보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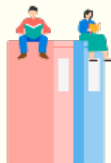
더 커다란 대포를
- 1학년부터



그 이름이 덩터디
- 3학년부터



뽕실 언니
- 5학년부터



포담초 도서관 공지 사항

지난 5월 17일 화요일부터 5월 18일 수요일까지 포담초등학교 도서관 이름 공모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포담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새롭게 꾸며질 학교도서관에 어울리는 이름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행사는 포담초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사서선생님이 미리 전달한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 짓기 활동지>를 담임 선생님께 받아 작성 후, 도서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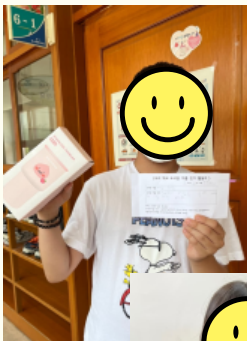
총 53명의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후보작 중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교사 위원 및 교원 협의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최종 당선작

'정담 도서관'

- 정담의 사전적 의미 (정답게 주고 받는 이야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담아 정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도서관이라는 뜻

- 응모자 : 안0진 선생님



*최종 후보작

1. 포름달 도서관

- 보름달처럼 포담초 학생들이 빛나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 응모자 : 3-1 신0경 학생

2. 서담 도서관

- 학교의 이름을 본 따 서(책)을 담다는 의미

- 응모자 : 6-1 정0하 학생



독서 퀴즈



문제의 답을 작성하여 **7월 중으로** 도서관 사서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소정의 간식을 드립니다.

1. 포담초 도서관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인가요 ?

2. '플라스틱 섬' 책에서, 플라스틱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라고 이야기 하고 있나요 ?

3. 6.25전쟁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해보세요.
